

# 헤럴드 기어 변호사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자동차 혹은 트럭사고, 척추나 디스크에 관련 된 사고, 공사현장 사고, 뼈가 부러진 사고, 범죄로 희생양이 된 사고, 각종 상해, 사망사고

1-877-249-4600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 은빛 요양원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도와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전문가 서비스  
가정 같은 또 하나의 생활공간  
간호, 간병, 전문 재활치료  
한국문화 정서와 여가 활동

한국어 직통

732.770.0609

www.은빛요양원.com



16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준 풀턴 부동산**  
908-295-7053

준 원출 풀턴  
Sales Associate  
Re/Max Instyle Realty  
june@instylerealty.com



1378 Route 206 Suite 202, Skillman, NJ 08558 junefulton@remax.net

# KWIK 모기지

주/택/용/자/전/문

다양한 융자상품, 전화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s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 VESTA·OH

Kitchen & Bath Renovation

부엌, 욕실 전문그룹

오용운 토마스 | m 917-662-8353 | kitchenoh@hotmail.com

#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trust@gmail.com

# 에디슨 현대정비 Hyundai auto repair

김도영 (Phillip Kim)  
C/P : 732-853-5696  
Tel : 732-543-1110  
1808 Woodbridge Ave. (Rt. 514)  
Edison, NJ 08817

**메디케어 무료상담**  
올바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박미원**  
Independent Licensed Agent

문의 전화 908 655 5339

**이문식**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각종 안질환 치료  
백내장 검사 및 녹내장 치료  
검안 및 시력 교정  
아동 시력 치료 및 시력 교정  
콘택트렌즈 및 안경 맞춤

P. 732-393-1210  
1734 Lincoln Hwy (Rt. 27)  
Edison, NJ 08817  
에디슨 H-Mart 앞

**HONORS REVIEW** East Brunswick

SAT, ACT, APs, Enrichment Programs  
우성현 스테파노 732-254-3349  
3 Lexington Ave East Brunswick NJ 08816

**ND EAST BRUNSWICK**  
NEW IMAGE DENTAL LLC

444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Tel. 732-432-8388

J. Woo D.D.S.

**강준한의원**

진료 안내  
한의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환약(보약, 치료약)  
침, 뜸, 부항  
중국 전통식 지압

(732) 287-8881  
1734 Lincoln Highway Rt. 27, Edison  
에디슨 H-Mart 앞 확장 이전

**종합건축 AAMD construction**

주택, 상가, 무료 상담 및 견적, 면허, 보험소지  
골지 아픈 문제(건축허가, 누수), 비닐 담장, 데크, 마루, 욕실, 주방,  
지하실, 상가 리모델 등 건축 전반에 책임시공(기본 1년 보증)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성당 교우 10% DC)  
732-964-9787  
email: aamdconstruction@yahoo.com

성지순례, 단체관광, 크루즈 전문

**가고파여행사**

201-802-0820

353 Broad Ave. Suite 203 Leonia, NJ 07605

**BOYLAN**  
Funeral Home

Edison 732-572-0076

**HYUNDAI TOYOTA KIA NISSAN**

**SANSONE** AUTOMALL

BEST CAR, BEST PRICE

90-100 RT.1 Avenel NJ 07001

**Manny Kim**  
201-852-3232

연중 제2주일  
2020년 1월 19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 ~ 금 - 9:00 AM

주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8:00 AM  
(영어) - 10:00 AM  
(한국어) - 11: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의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29)  
"프란치스코 데 수르바란" <하느님의 어린양>, 프라도 미술관

**<이번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이사야서 49,3,5-6  
# 화답송 시편 40(39),2-4, 7-10 (8과 9과 참조)

후렴: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 코린토 1서 1,1-3

전례 성가	입당성가 4번	봉헌성가 215번, 216번	성체성가 497번, 152번	파견성가 77번
성체 분배	# 1/19 오애희, 이재성		# 1/26 김영필, 임문수	
안내 봉사	# 1월: 천상의 지혜 Pr. # 2월: 모든 성인의 모후 Pr.		# 1/19: 썸머셋 # 1/26: 성모회 # 2/2: 피스브리치	
신자들의 기도	# 1/19: 정길례 프란체스카		# 1/19: 김인영 수잔 심윤조 이피제니아	

# 복음환호송 요한 1, 14,12 참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음 마태오 3,13-17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이 이사벨라
• 이명자 (세실리아)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준호 (베드로)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 곽창호 (어거스틴)	- 가족
• 우상일 (요아킴), 윤기복 (안나)	- 우 가브리엘
• 허윤 (에디)	- 육순재 (프란치스코) 가족
• 이태석 (요한) 신부님	- 유 베로니카
• 최혜경 (데레사)	- 곽 루시아

생미사	(봉헌자)
• 오홍순(카타리나)	- 오.사.모
• 최기쁨, 밝음, 누리	- 최 율리아나
• 이호용 (프란치스코), 최정원 (레지나) 가정	- 박락준 (베드로) 가족 - 문마린 (마리나) 가족 - 채희백 (바오로) 가족 - 추민수 (요한) 가족 - 한철희 (필립보) 가족 - 나채국 (제노) 가족
• 젯세니아 랭건의 견진을 축하하며	- 가족 - 피스브릿지 구역 - 한지혜 (크리스티나) - 김민주 (이스베리가)

## 지난 주 우리의 정성

구분	1차 헌금	2차 헌금	합계
KCC	\$1,189	\$438	\$1,627
OLM	\$2,967	\$950	\$3,917
<b>합계</b>	<b>\$4,156</b>	<b>\$1,388</b>	<b>\$5,544</b>

미사 참석: 171명

## 교무금 안내

성낙순 (2-7)	최율리오 (1)	이창우 (1)	<b>합계 \$1,230</b>
박락준 (1)	이상화 (1)	유근성 (1-3)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 공지 사항

- # 2차 헌금 안내  
- 오늘 (1월 19일) 미사 중 교구청 주관 Foundation for Catholic Education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 설 합동 위령미사 봉헌 신청  
- 1월 26일(주일) 미사는 설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합동 위령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미사 후 차례상 차림과 민속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 2020 Youth Group Ski Trip  
- 일시: 1월 31일(금) ~ 2월 2일(일)  
- 장소: Camelback Ski Resort  
- 문의: 이윤정(프란체스카) 201-320-9979  
- 유스그룹 스키트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신자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입문 / 중급 / 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 원서: <http://uus.pauline.or.kr>  
- 마감: 2020년 1월 31일  
- 문의: 성당 사무실 또는 uus@pauline.or.kr

- # 2020년 한국성지순례단 모집  
- 신청 마감: 2월 15일까지  
- 일시: 2020년 10월 20일 ~ 10월 30일(10박11일)  
- 순례지: 제주, 부산,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대교구 성지  
- 임진각 파티마 평화의 성당 남북통일 기원미사 후 서울귀환  
- 참가신청비: \$3,000  
- 신청방법: 여권카피와 예약금 \$1,000 (선착순 25명)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 마리아 투어 212-594-7773

- # 연례회에서 노래로 하는 연도 연습을 시작하려고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사무실 또는 신용철(다니엘) 사회복지 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 2019년도 교무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교우분들은 1월까지  
납부 부탁드립니다.

-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옥순 수산나, 정영욱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 # 우드브릿지 + 피스카타웨이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1월 19일 (주일) 오후 3시 채희백(바오로) 형제님 댁
- # 사우스브런스워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1월 19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노스브런스워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1월 26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9-34

그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신 앙 체 험 수 기

### 첫 임신. 그리고 12주만의 유산.

가슴이 벅찰 기쁨에 이어 느닷없이 들이 닥친 불행은 '내 삶은 내 노력만 있으면 뭐든 가능해'하는 밀도 끝도 없는 자만으로 살아왔던 제게 도저히 일어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든 가능하다 생각 했던, 그 잘났다 생각했던 가당치도 않은 내 노력으로는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기도 따위를 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토익 점수를 일점이라도 더 올리겠다.'하는 생각이 훨씬 더 세상을 제대로 사는거라고 믿었던 저는 그 아픔으로 인해 뼈저리게 깨달아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 삶은 결코 내 뜻 대로, 내 의지대로만 돌아가는게 아니란걸 말입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 아픔을 주신것 역시도 아버지의 뜻이었나봅니다.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이미 떠나보낸 아기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게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 때까지 저는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어떤 누구에게든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느님의 존재마저도 부정했던 제가 병원에서 나와, 제대로 걷기조차도 힘든 몸을 이끌고 곧바로 간 곳은 다름아닌 집 앞 성당이었습니다. 아기를 제발 하늘나라로 가게 해 달라고, 아기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제발 천사들과 함께 하늘 나라에서 놀 수 있게 해 달라고 한참을 울먹이며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아버지께 맡기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내 삶에 아픔을 주시는 것도, 또 그 아픔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란 사실을 저는 결국 아버지가 주신 그 아픔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은 그 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믿고 있는 사실이 한가지 있습니다. 모자라디 모자란 엄마의 마음 깊은 곳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심어 주고 떠난 그 아기는 오늘도 하늘나라에서 신나게 천사들과 놀고 있을거란 사실 말입니다.

- 고성희 (아니시아)

## 복음 묵상 나눔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미사 때에 “하느님의 어린양”을 언제 외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2.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로 어떻게 봉헌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